

제 목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나는 연구원이 될거야>

12년의 의무교육 과정 중 어릴 적부터의 꿈이나 롤모델로 생각하는 것도 모두 과학자, 연구원이었을 정도로 과학 과목을 좋아했던 저는 연구원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두지 않았지만 무엇이든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내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꿈을 간직한 채 과학 실험 동아리를 운영하고, 박람회 방문하는 등 꿈을 이루기 위해 바쁘고도 알찬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넘지 못한 수능의 벽, 멀어져 가는 나의 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벽을 느끼고 원하는 성적을 만들지 못했던 저는 결국 수능 실패라는 첫 고배를 마시고 원하던 대학, 원하는 학과에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위 친구들의 합격 소식에 자존감은 낮아져 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먹지 못하고, 성적에 맞춘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여 조금은 불행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시간>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나니 바로 차갑고도 혹독한 사회생활이라는 관문을 마주하게 되었고, 대학 생활을 하며 부족했던 전문 지식을 채우고 보완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국가사업을 만나 내일배움카드를 품질경영실무과정을 약 4개월간 듣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듣고 나의 전공과 관련하여 부족했던 전문 지식을 NCS 수업과 전산회계, ERP정보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을 통해 스펙을 추가하고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 사무직 계열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쉽지 않았던 회사 생활 그리고 다시 제자리>

첫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업이었지만 대표님의 열정, 친절한 동료들과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적응을 해나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지원하고 준비하면서 성과를 내는 경험으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의 좋지 않은 상황으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또다시 취업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손을 잡아준 새일센터>

이후 오랜 취업 준비에 용기를 잃고 방황하던 저에게 새일센터에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당시 취업준비생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개설된 SW 개발자 과정을 추천해주셨을 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에 대한 고민 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였기에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해온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반에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고 재 연락을 드렸을 때, 선생님의 간절하고도 타당한 설득에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보자 라는 마음에 최종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웠지만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된 SW 개발자 교육 과정>

흥미로 시작했던 교육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의 연속이었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도 못해서 많은 애를 먹었지만, 강사님들의 열정적이고 친절한 강의에 자신감을 갖고 복습을 하면서 교육 내용을 습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새롭게 배우고 습득해나가는 것에 흥미를 넘어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성장하는 것이 스스로 느껴져서 하루하루 즐겁게 수강하였습니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

평소와 같이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저에게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의 인턴 채용 공고를 추천해주셨습니다. 듣고 있던 교육훈련과정과는 관련사항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준비해온 경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공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서류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는데, 전공경험을 살린 경험 사항과 서류들을 준비하고, 저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서류 전형 합격 소식을 접하고,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여 끊임없이 연습하였고, 면접 전까지도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읽어보고 면접에서 떨거나 말을 더듬거리지 않도록 연습에 또 연습을 했습니다.

<면접 그리고 합격>

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면접장에 갔을 때는 생각보다 본격적인 면접장 분위기에 기가 눌렸지만 준비해간 내용만 잘 이야기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은 5명씩 진행되었고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등이 나타나는 용어 사용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는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면접 내내 신경 썼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허리를 쭉 피고 앉아서 적극적인 지원자임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의 질문 시간에는 계속 면접관들의 눈을 마주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답 차례가 되면 면접관들을 모두 한 번씩 쳐다보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이 말을 잘 하기에 나보다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은 것 같아 기가 죽었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자기소개서를 숙지하고 간 덕분에 대답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면접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결과는 기대하지 않고 후련하게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합격 소식을 문자로 통보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인턴 생활의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현재는 인턴으로서 공단과 부서의 일을 돕고 지원하며 업무를 배우고 있으며, 해당 경험을 토대로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자격증 준비와 서류, 필기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만들어낸 지금의 나>

대학을 입학하고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고, 때때로 많은 실패를 맛보고 자신감에 이어 자존감까지 잃어갔던 저였지만, 새일센터를 만나고 자신감을 얻어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해가며 미래의 저를 상상하며 앞날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벽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못 뚫는 벽은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 좋은 기회가 생기는 등 길이 보일 테니 지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